

중국 19차 당대회의 경제분야 결정 내용과 시사점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19차 당대회의 의의 : 국가비전과 1인 지도체제 마련

- | | |
|---|----------------------|
| 3 | 1.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선거 결과 |
| 4 | 2. 선거 결과의 의미 및 시사점 |

II. 19차 당대회 경제분야 주요 결정

- | | |
|---|-----------|
| 3 | 1. 결정 내용 |
| 4 | 2. 리더십 재편 |

III. 당대회 이후 경제정책 전망

- | | |
|---|---------|
| 3 | 1. 대내정책 |
| 4 | 2. 대외정책 |

IV. 시사점과 대응방안

[첨부]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 및 정치국원 프로필

요 약

- (의의)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10.14~24일)에서 포용적인 (comprehensive) 글로벌 강대국화 전략이 제시됨
 - 이를 위해 △안정적 1인 지도체제 구축,* △장기 국가비전 및 단계별 전략목표 설정**, △글로벌 강대국 지향 방침***을 천명
 - * 1인 우위 지도부 구성 및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당헌 삽입
 - ** ‘2개 1백년 달성 향한 역사적 교차기(현재)’, 2개 단계 30년에 걸친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금세기 중반까지) 설정
 - *** ‘인류문명공동체’, ‘신형대국관계’ → ‘신형국제관계’ 대체
- (경제정책) 혼합 경제운용, 혁신기반 분배, 국가주도 개방경제로 요약되는 독특한 ‘중국형 경제체제’ 운용 방침 천명
 - (경제시스템) 소유제면에서 국유(혼합) 소유제, 경제운용은 정부주도 시장경제 방침 천명
 - * 국유자산관리 개선·혼합소유제 발전·거시조절 개선 동시에 시장화 확대
 - (성장동력) 혁신(신산업)과 분배 통한 성장 동시 강조
 - * 공급측 개혁·혁신 강화와 실질경제·농촌진흥 동시 강조
 - (대외경제) 개방과 자유무역 강조하되 국가가 주도하는 네트워크·플랫폼 병행
 - * 무역·투자 자유화 확대와 일대일로 통한 협력사업 및 플랫폼 추진
- (영향) 1인 지도체제하 정부주도 경제의 장기적 지속 방침은 중국경제의 지속발전 가능성과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전망
 - (예측가능성) 리스크 가능성 잔존하나 기존 거시경제 운용 및 개혁, 산업 및 시장 육성 방침 지속 천명으로 비즈니스 불확실성 감소
 - (장벽·차별) 투자·서비스 개방 확대, 무역원활화, 지역경제통합 지속 추진으로 중국시장 진입장벽 완화와 공정·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확대 전망

□ (대응방안) 기업 진출방안 재정비, 지원 및 협력체제 개선

○ (기업) 불안요인 잔존하나 중국시장의 장기적 성장 및 비즈니스 여건 개선 예상되므로 중국 진출전략 재정비의 기회로 활용

- 인터넷 플러스(+) 등 신성장 산업, 스마트 제조 육성책에 따른 기계설비와 원부자재 수요, 환경 산업 확대 수요, 도시화 관련 수요 등 지속 확대 예상
- 사드 관련 보복 및 여건 불안정성 감소 가능성이 크므로 소비재, 식품 대중 수출 및 서비스 진출 전략 추진 모색
- 연말(12월 20일) 발효 4년차에 접어드는 한중 FTA의 활용 혜택도 커지므로 한중 FTA 활용 확대에 노력
- 특히 소비재 수출이 많은 중소기업의 한중 FTA 활용이 중요

○ (정부·지원기관)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및 포용적 글로벌 강국 전략을 감안한 활용 및 협력 전략 추진

- 19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계획에 따른 시장 진출 기회 발굴, 홍보
- 한중 FTA 활용 확대 지원 및 이행 강화와 후속협상 추진
 - 한중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중소기업 대상 홍보와 지원 강화
 - 각 분야 한중 FTA 이행 및 후속작업 강화
 - * 통관, 기술무역장벽(TBT), 위생검역(SPS) 등
 - 조만간 시작될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한 자유화 확대
 - 한중 FTA 시범사업 추진 강화 및 협력 모델 발굴
- 중국의 핵심 대외경제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중간 협력 모색
 - 한중간 일대일로 협력 방안 발굴 및 추진
 - 자유무역시험구 연계 시범사업 모색

I. 19차 당대회의 의의 : 국가 장기비전과 1인 리더십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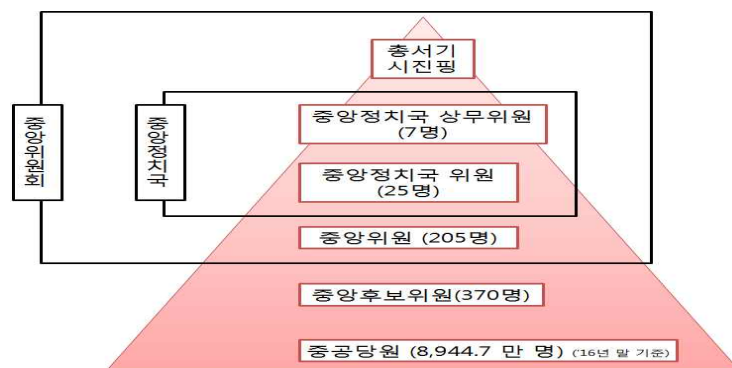
□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통해 중장기 국가전략 공포

- '17년 10월 18~24일간 열린 19차 당대회(중국공산당 19차 전국 대표대회)에서는 미래 30~40년 간의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진핑 2기 새 지도부 인선
 - 시진핑 주석은 당대회 보고를 통해 2021년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으로 향후 5년은 샤오캉 사회(小康, 중등 생활 수준)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한 ‘결전의 시기’ 라고 강조
 - 아울러 대내외 경제정책, 외교, 국방, 사회 및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
 - 이와 함께 지도부 인선에 따른 권력 재편을 마무리
 - * 최고 권력서열 7명 가운데 5명을 새로 선출하고, 총원 25명의 중앙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재구성(25명중 20명을 새로 선출)

☞ [참고] 중국공산당의 권력구조

- 약 9천만명의 당원 가운데 선발된 2,300여명의 성별 대표가 당대회에 참석
 - 이중 370명 내외의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을 선출하고 여기에서 다시 200여명의 중앙위원을 선출
 - 중앙위원 200여명 중 25명이 정치국원이 되며, 이 중 7명이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출
 - * 4대 직할시 수장, 국무원 부총리, 군사위 부주석 등 요직간부들이 중앙정치국을 구성
 - 정치국 상무위원이 중국 권력 피라미드의 정점에 위치하며 당/정의 주요 업무와 권력을 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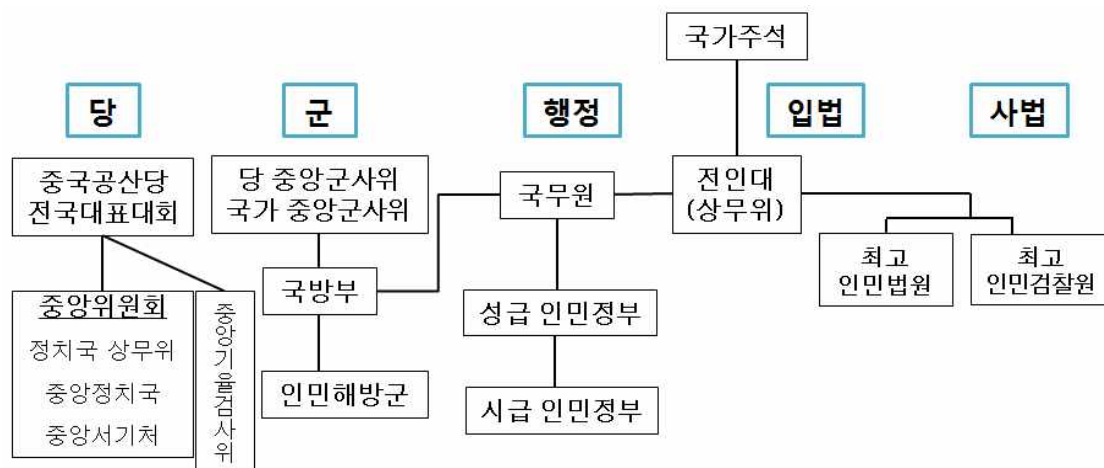
<중국공산당의 피라미드 권력구조>



자료 : KOTRA 베이징무역관

[참고] 중국의 정치 시스템

-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이자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이 선출되지만 중국은 일당독재 체제로 공산당이 인사권을 통해 전인대를 통제
 - 중국공산당 당 권력(당 총서기)을 장악해야 최고지도자로 등극
 - 총서기가 국가주석(국가원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군 최고 통솔자) 등 모든 직위를 맡으며, 당·정·군 3대 권력을 장악한 최고 지도자
- 중국은 5년마다 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며, 5년 임기 내에 총 7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
 - 특히 제 19차 전국대표대회 폐막 다음날(25일) 개최된 1중 전회에서 새로운 최고 지도부인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향후 권력 판도를 가늠해볼 수 있음
 - 당대회 2차년도 초에 열리는 2중 전회에서는 정부인사 개편안과 행정개혁안 심의
 - 2차년도 가을에 개최되는 3중 전회에서 경제개혁 방안을 본격 논의
 - 3차년도에 4중 전회, 4차년도에 5중 전회, 5차년도에 6중 전회와 7중 전회에서 각기 정해진 의제 논의



자료: KOTRA 베이징무역관

□ ‘시진핑 사상’, 중국공산당 당헌(黨章) 삽입 및 1인 핵심 권력 공고화

-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당헌에 삽입
 - 10월 24일 폐막시 당헌 개정안 통과하면서 ‘시진핑 사상’ 삽입
 - 과거 장쩌민의 “3개 대표 이론”과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은 당헌에 포함됐으나 주창자의 이름까지 명시된 것은 1, 2세대 최고지도자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 뿐임
 - 따라서 이번 ‘시진핑 사상’의 당헌 삽입은 시 주석이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게 됨을 의미

☞ [참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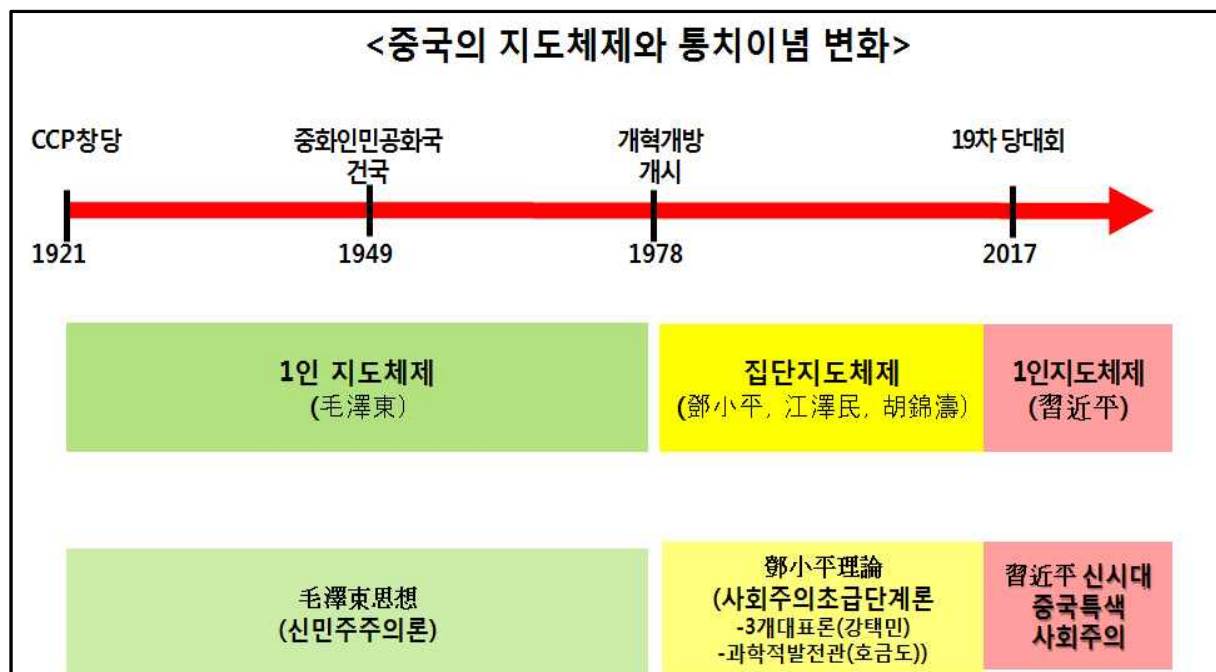
- 19차 당대회 보고를 통해 제시되었으며 마오쩌둥 사상에 이어 두번째로 ‘사상’ 칭호를 받은 중장기 중국 및 중국공산당의 총 방침
- (내용) 임무, 모순, 이념, 방침등으로 구성
 - (신시대 중국의 임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 *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2050년까지 부유하고 민주문명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 (신시대 사회 모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간의 모순
 - (신시대 발전이념)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
 - (총 사업 방침) ‘5위 일체’와, ‘4개 전면’
 - * ‘5위 일체’: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
 - ** ‘4개 전면’: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전면적 개혁심화, 전면적 의법치국, 전면적 당 통치(중엄치당)

□ 특히 이번 대회에서 중국의 미래 30~40년에 걸친 국가비전을 제시하여 집권의 정통성과 안정성 강화를 도모

○ 이번 당대회에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제시하고 이를 마오쩌둥 사상*에 이은 두번째의 ‘사상’으로 공산당 당헌(黨章)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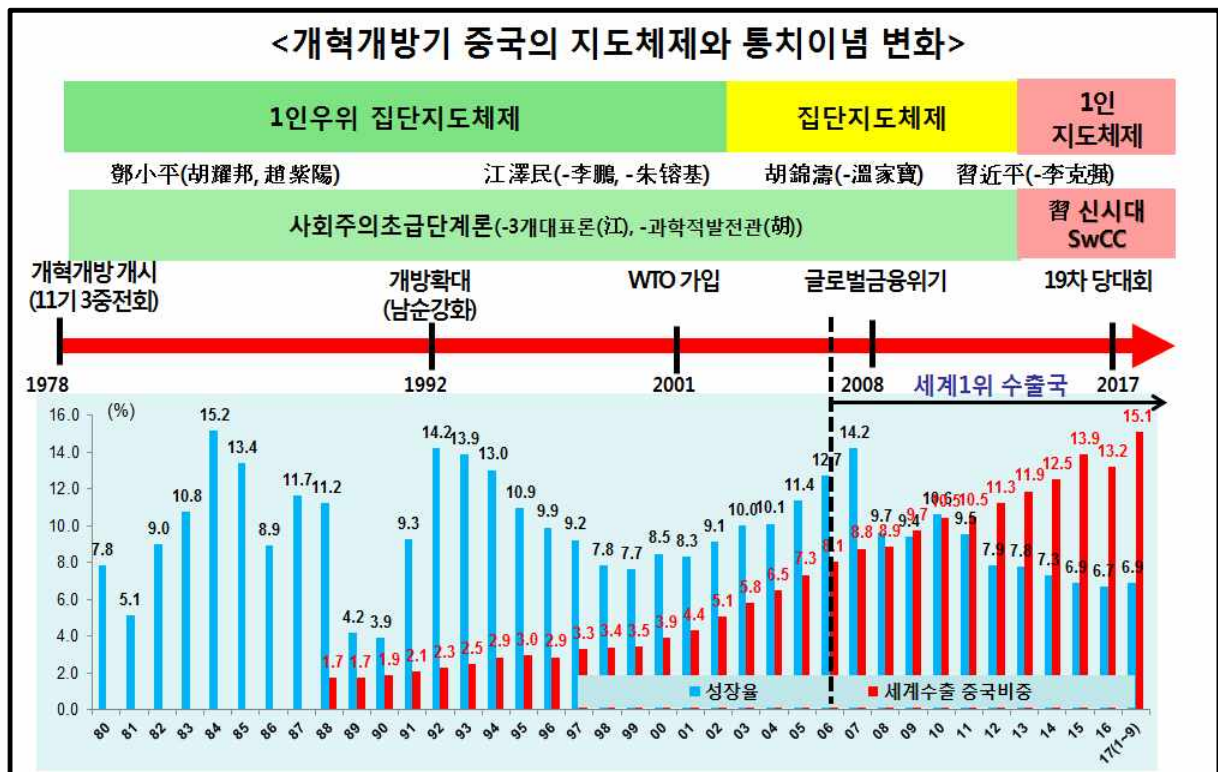
* ‘신민주주의론’, 즉 1949년 이전 ‘반식민지 반봉건’상태에 있던 중국을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반제국주의 해방과 반봉건 혁명을 연속으로 달성한뒤 중국을 사회주의국가로 이끈다는 사상. 건국이후 문화대혁명기의 기반이 된 ‘계속혁명론’등은 마오쩌둥 사상으로 간주되지 않음

-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조차 ‘덩샤오핑이론’이라 하여 사상의 반열에 이르지 못함
- 이로서 덩샤오핑~후진타오 기간 유지되었던 집단지도체제는 사실상 종료됨



* 자료 : 시진핑 주석의 19차 당대회 보고와 중국 권력구조에 대한 기존 논의를 기반으로 자체 작성

- 중국의 지도 이념 및 지도체제를 개혁개방 이후시기로 좁혀보면
시진핑사상 및 지도체제의 중요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남
- 시진핑 사상, 즉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개혁개방 이후 40여년간 통치의 근거가 되어 온 사회주의초급
단계론이 ‘시대적 역할’을 종료하고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
었음을 의미
- 아울러 사실상 시진핑 1인 지도체제의 등장 역시 마오쩌둥 이후
4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집단지도체제*의 마감을 의미
- * 집단지도체제의 세부 특성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덩샤오핑·장쩌민 집
권시기는 1인 우위의 집단지도체제, 후진타오 시기는 (권력 분점형)
집단지도체제라 할 수 있음



* 설명 : ‘협 신시대 SwCC’ :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 자료 : 시진핑 주석 19차 당대회 보고와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작성

II. 19차 당대회 경제분야 주요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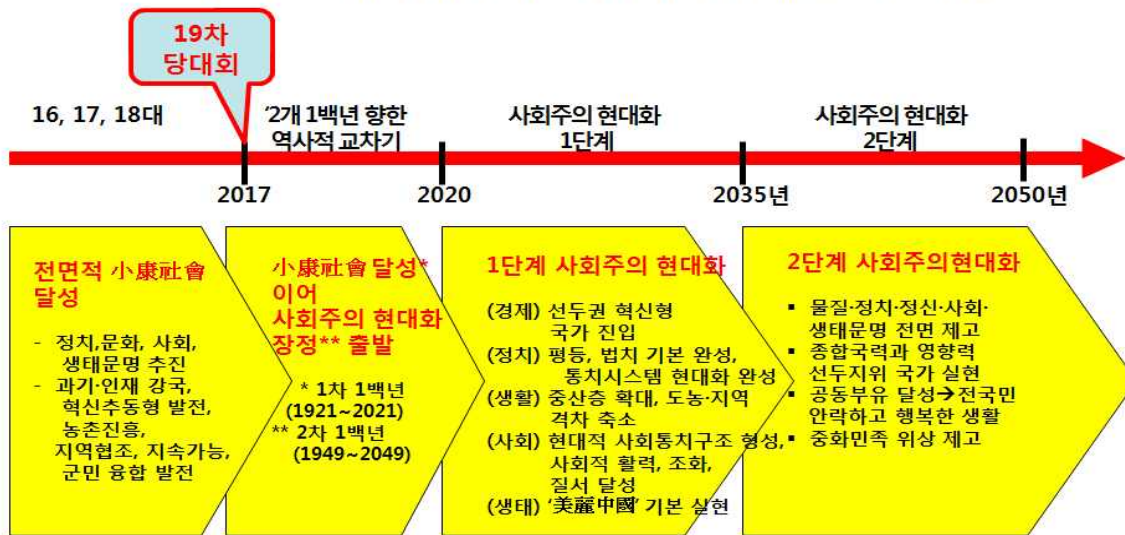
1. 결정 내용

- 이번 당대회에서 ‘신시대’에 맞는 경제분야 정책 아젠다 및 정책 방향을 제시
 - 정부가 아닌 정당 대회임을 감안, 세세한 정책 조치 보다는 아젠다 및 방향 설정에 집중
 - 주요 내용은 아젠다 및 시기(단계)별 과제 설정, 기본 방향, 정책과제 등으로 구성

□ 시기(단계)별 아젠다 및 과제 설정

- 이번 당대회에서 향후 5년은 물론 이후 30여년에 걸친 장기 발전 목표를 단계별로 제시하고 이를 ‘시진핑 사상’의 기반으로 활용
- (향후 5년 과제) 18차 당대회(‘17년)까지 추진해 온 샤오캉사회 달성(1차 1백년)에 이어 사회주의 현대화건설 과정(2차 1백년)을 개시
- (장기 과제(2020년 이후)) 2020년 이후 21세기 중엽까지 30여년 과제를 2개 단계로 나누어 실시
 - (1단계) 전면적 샤오캉사회에 기초한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15년 (2020~35년))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반 마련
 - (2단계) 부강·민주·문명에 기반한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 (2035년~금세기 중엽(15년))을 위한 경제적 기반 및 국가시스템 구축

<시진핑 신시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단계별 건설 과정>



단계	시 기	목 표
현재~2020년	전면적 샤오캉사회 달성기 (16, 17, 18대)	○ 샤오캉사회 달성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 실시 -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추진 - 과학교육 강국, 인재 강국, 혁신 추동형 발전, 농촌진흥, 지역협조발전, 지속가능 발전, 군민 융합발전
	'2개 1백년' 향한 역사적 교차기 (19~20대)	전면적 샤오캉사회 달성(1차 1백년)에 이어 사회주의현대화 국가를 향한 새로운 장정(2차 1백년) 개시
2020 ~ 금세기 중엽	(1단계) 전면적 샤오캉사회에 기초한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15년(2020~35년))	○ (경제) 경제·과학기술 실력 대폭 제고하여 선두권 혁신형 국가 진입 ○ (정치) 평등 참여·평등 발전 권리 보장, 법치국가·법치정부·법치사회 기본적 완성, 분야별 제도 개선, 국가 통치시스템 및 통치능력 현대화 기본적 실현 ○ (생활수준) 중산층 비율 제고, 도농·지역발전 및 생활 격차 축소, 균등한 공공서비스 기본 실현, 전체 공동부유 실현 개시 ○ (사회통치) 현대적 사회통치구조 기본 형성하여 사회적 활력·조화·질서 달성 ○ (생태환경) '아름다운 중국(美麗中國)' 목표 기본 실현
	(2단계) 부강·민주·문명 기반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현대화 강국 실현 (2035년~금세기 중엽(15년))	○ 물질문명·정치문명·정신문명·사회문명·생태문명 전면적 제고 ○ 국가 통치시스템 및 통치능력 현대화로 종합국력과 영향력 선두지위 국가 실현 ○ 공동부유 기본 실현으로 전 국민이 행복하고 안락한 생활 향유 ○ 중화민족이 더욱 드높은 자태로 세계 민족 무대에 입지

* 자료 : 시진핑 당대회 보고 정리

□ 현시기 핵심 과제와 전략

- (해결과제) ‘아름다운(美好) 생활 요구 증가와 불균형·불충분한 발전간 모순’을 해결 과제로 제시
 - 현재(19대)의 난관과 도전으로 ‘불균형 발전에 따른 문제의 미해결, 낮은 발전의 질과 효율, 혁신능력 불충분, 실질경제 수준의 미진, 생태환경보호 미비’를 제시(보고 문건)
 - 소강사회(小康, 안락한 상태)를 대체로 실현했으나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美好生活) 수요가 점점 커지고, 물질문화 생활 요구가 더욱 높아지며, 민주·법치·공평·정의·안전·환경 등 분야 요구 역시 나날이 증가하며, 사회생산력 제고와 일부 세계 선두지위 진입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불균형·불충분하여 나날이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기본 전략〉

구분	목표	내 용
총 임무	사회주의현대화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에 기반해 금세기 중엽까지 부강한 민주문명과 조화롭고 미려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주요 모순	아름다운 생활(美好生活) 요구와 불균형·불충분 발전간 모순	○ 인민 중심 사상 견지 ○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공동부유 촉진
전략 배치	총 개혁목표	○ 중국 특색 사회주의제도의 개선과 발전 ○ 국가 통치시스템과 통치 능력 현대화
	법에 의한 통치 목표	○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시스템 및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신시대 강군 목표	○ 공산당 지도, 강력한 전투력, 우수한 작풍의 인민군대 건설, 세계 일류 군대 육성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 신형 국제관계 추진,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 추진
	추진 방안 : ‘5위 일체(五位一體)’, ‘4개 전면(四個全面)’	○ (5위 일체) 혁신(創新)경제, 균형성장, 생태발전, 대외개방, 동반(共享)경제 ○ (4개 전면) 전면적 샤오강, 전면적 개혁심화, 전면적 의법 통치, 전면적 당 지도

□ 경제정책 내용

- 양적 성장에서 질적 고도화에 걸맞는 구조 조정 및 성장동력 확보가 기본 방향으로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 정책 지속 추진을 재확인
- (6대정책) 구체적으로 전략적 목표와 함께 6개 분야 정책 과제를 제시
 - (전략목표) 현대화된 경제시스템 달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품질 및 효율 향상, 성장동력 발굴, 실질경제, 과학기술 발전, 금융개혁, 인력 육성등을 방향으로 제시
- (공급측 개혁) 공급시스템 질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아 경제의 질적 우위 제고를 도모
 - (육성과제) 제조강국 건설과 선진제조업 발전 가속화를 목표로,
 - 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과 실제 경제 융합 가속화, 중 고급 소비·혁신 유도·녹색저탄소·공유경제·현대적 공급망·인적자본 서비스 등 신 성장점 발굴
 - 글로벌 수준 선진제조 클러스터 육성하여 글로벌 가치사슬내 중고도화(中高度化) 촉진
 - 수리·철도·도로·수운·항공·상하수관·전력망·정보·물류 등을 추진 등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 전통산업 특화 제고, 현대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국제표준 준수 통한 고품질 달성
 - (구조조정) 동시에 과잉생산·재고·지렛대 제거 및 비용 감소·부족지점 보충 견지하여 우수 품질 공급 확대하고 동태적 수급 균형 실현
- (혁신 강화) 혁신 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능력 및 제도 개선

- 기초연구 · 응용 기초연구 강화
 - 핵심 공공기술 · 전방유도 기술 · 현대 공정기술 강화하여 과학기술강국 · 품질 강국 · 항공우주 강국 · 네트워크 강국 · 교통 강국 · 디지털 강국 · 스마트 사회 지원
 - 국가 혁신시스템 구축 강화하고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 기업 주체, 시장 유도, 산학연 융합 시스템 육성
 - 혁신문화, 지재권 강화
 - 차세대 국제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
- (농촌 진흥) 농촌 및 농업 안정과 현대화를 위한 조치 제시
- 도농 융합발전체제 및 정책 체계 통해 농업 · 농촌현대화 가속화
 - 농촌기층경영제도 개선
 - 토지책임경영제 장기적 안정 유지, 제2차 승포 30년 재연장 허용
 - 농촌 집체재산권제도 개혁 통한 농민재산권 보장
 - 식량 안전 보장
 - 농업현대화 추진
 - 농촌 1, 2, 3차 산업 융합발전 촉진
- (지역균형)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겨냥한 지역발전 정책 방침 제시
- 혁명근거지, 민족지역, 변경지역, 빈곤지역 발전 가속화
 - 서부대개발의 신구도 형성, 동북등 노공업기지 진흥 개혁 심화, 중부굴기 장점 발휘, 동부지역 특화발전의 혁신 인술 강화
 - 도시 주체, 대중소 및 소도시 협조발전 구도 통해 농업 인구의 시민화 가속화
 -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 이전 통한 징진지 협동발전 추진, 숭안(雄安)신구 건설
 - 보호, 난개발 억제 지향의 창장(長江)경제벨트 추진
 - 자원형 지역 경제의 전환 발전 지원
 - 변경지역 발전, 해양-육지 동시 발전 통해 해양강국 가속화

- (경제개혁) 국유자산 관리, 혼합소유제, 경제운용 메커니즘 개선을 위한 경제개혁 방안 재확인
 - 국유자산관리체제 개선 : 국유자산 운영체제 개혁, 국유경제 배치 특화·구조조정·전략적 M&A 가속화
 - 국유기업 개혁 심화 : 혼합소유제 발전,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일류기업 육성
 -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전면 실시 : 공평경쟁, 민영기업 발전, 각종 시장주체 활력 장려
 - 상사제도 개혁 : 요소가격 시장화 가속화, 서비스업 진입제한 완화 등
 - 거시조절 혁신 및 개선 : 재정, 화폐, 사업, 지역등 경제정책의 조절협조 개선
 - 기타 소비체제 개선, 현대적 재정제도 건립 가속화, 세수제도 개혁 심화, 지방세시스템 건전화, 금융체제 개혁 심화, 이자율과 환율 시장화 심화, 금융감독체제 건전화
- (대외개방 확대) 대외개방 확대의 가속화 방침 천명
 - 일대일로를 축으로 외자유치(引進來)와 해외진출(走出去) 병진, 혁신능력 개방협력 강화, 육해내외 연동·동서 쌍방향 소통 개방 구조 형성
 - 무역 신업태, 신모델 육성하고 무역강국 건설 추진
 - 고수준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추진, 진입전 내국민대우 네거티브리스트 확대하고 시장진입 대폭 완화, 서비스업 개방 확대, 외상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 중국내 등록기업에 평등 대우 제공
 - 지역개방 구도 특화하여 대서부개방 확대
 - 자유무역시험구의 자주권 개혁 확대, 자유무역항 건설 모색
 - 대외투자 방식 혁신 : 국제 생산협력 촉진하고 글로벌 무역·투융자·생산·서비스네트워크 형성

<19대 경제체제 건설 과제>

과제	내 용	18대 비교 (12.11, 후진타오)
발전 단계	성장방식 전환, 경제구조 특화, 성장동력 전환기	발전제일, 방식전환
전략 목표	○ 현대화된 경제시스템 달성 - 품질제일 · 효율 우선 견지, - 공급측 구조개혁 중심축 설정, - 경제발전의 질 · 효율 · 동력 변혁 추진, - 전체 요소생산성 제고, - 실질경제 · 과기혁신 · 현대적 금융 · 인력 발전, - 미시주체 활력-거시통제 동시 작동 메커니즘 구축	신형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추진
공급측 개혁 심화	○ 공급시스템 질 개선 통한 경제의 질적 우위 제고 ○ 제조강국 건설과 선진제조업 발전 가속화 - 新 성장점 · 성장동력 형성 * 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과 실제 경제 융합 가속화, 중고급 소비·혁신 유도·녹색저탄소·공유경제·현대적 공급망·인적자본 서비스 등 - 전통산업 특화 제고, 현대 서비스업 가속화, 국제표준 통한 고품질 달성 - 선진제조 클러스터 육성하여 GVC내 중고도화 촉진 -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 : 수리·철도·도로·수운·항공·상하수관·전력망·정보·물류 등 - 과잉생산·재고·지렛대 제거 및 비용절감·부족지점 보완하여 우수 품질 공급 확대하고 동태적 수급 균형 실현 - 기업가정신 유발·보호로 혁신형 창업 장려	성장방식 전환 목표로 전략적 구조조정 - 내수 확대 - 신흥산업 육성 - 서비스 육성 - 인프라·기초산업 육성 - 과기형 중소기업 육성
혁신 국가 건설 가속화	○ 기초연구·응용 기초연구 강화 ○ 핵심 공공기술·전방유도 기술·현대 공정기술 강화하여 과학기술강국·품질 강국·항공우주 강국·네트워크 강국·교통강국·디지털 강국·스마트 사회 지원 ○ 국가 혁신시스템 구축 강화,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 기업 주체, 시장 유도, 산학연 융합 시스템 육성 ○ 혁신문화, 지재권 강화 ○ 차세대 국제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	19대와 유사 - 중국형 자주혁신 - 과기체제 개혁 - 지식혁신체계 개선 - 국가 과기 PJ 실시
농촌진 흥전략 실시	○ 도농 융합발전체제 및 정책 통해 농업·농촌현대화 ○ 농촌기층경영제도 개선 ○ 토지책임경영제 장기안정 유지, 2차 승포 30년 재연장 허용 ○ 농촌 집체재산권제도 개혁 통한 농민재산권 보장 ○ 식량 안전 보장 ○ 농업현대화 추진 ○ 농촌 1, 2, 3차 산업 융합발전 촉진	도농 일체화 발전 - 19대에 비해 다소 포괄적, 모호 - 2차승포 30년 재연장 없음

지역 협조 발전전략 실시	○ 혁명근거지, 민족지역, 변경지역, 빈곤지역 발전 가속화 ○ 서부대개발 신구도 형성, 동북노공업기지 진흥 개혁 심화, 중부굴기 장점 발휘, 동부 특화발전의 혁신 인술 강화 ○ 도시 주체, 대중소 및 소도시 협조발전 통해 농업인구 시민화 가속화 ○ 베이징 기능 이전 통한 징진지 협동발전, 숭안(雄安)신구 건설 ○ 보호, 난개발 억제 지향의 창장(長江)경제벨트 추진 ○ 자원형 지역 경제의 전환 발전 지원 ○ 변경지역 발전, 해양-육지 동시발전 통해 해양강국 가속화	총전략하에 지역 비교우위 발휘 - 서부대개발 우선 추진, - 동북지역 전면진흥, - 중부굴기 촉진, - 동부지역술선택 전 지원 등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비 가속화	○ 국유자산관리 : 운영체제 개혁, 국유배치 특화·구조조정·전략적 M&A 가속화 ○ 국유기업 개혁: 혼합소유제,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일류기업 육성 ○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전면 실시 : 공평경쟁, 민영기업 발전, 각종 시장주체 활력 장려 ○ 상사제도 개혁: 요소가격 시장화·기속화, 서비스업 진입 완화 등 ○ 거시조절 혁신·개선 : 재정·통화·사업·지역등 조절협조 개선 ○ 기타 소비체제 개선, 현대적 재정제도 건립, 세수제도 개혁, 지방세 건전화, 금융개혁, 이자율·환율 시장화, 금융감독체제 건전화	19대와 비슷 - 국유자산 개선 국유기업 활력·통제력 강화 - 세수개혁 - 금융개혁
전면적 개방 신구도 형성 추진	○ 일대일로 축으로 외자유치(引進來)와 해외진출(走出去) 병진, 혁신능력 개방협력 강화, 육해내외 연동·동서 쌍방향 소통·개방 구조 형성 ○ 무역 신업태, 신모델 육성하고 무역강국 건설 추진 ○ 고수준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추진, 진입전 내국 민대우 네거티브리스트 확대 및 시장진입 대폭 완화, 서비스 개방 확대, 외상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 중국내 등록기업에 평등 대우 제공 ○ 지역개방 구도 특화하여 대서부개방 확대 ○ 자유무역시험구 자주권 개혁 확대, 자유무역항 건설 모색 ○ 대외투자 방식 혁신 : 국제 생산협력 촉진하고 글로벌 무역·투융자·생산·서비스네트워크 형성	개방형경제수준 전면적 제고 - 능동적 개방 - 대외경제발전 방식 전환 - 개방모델 전환 - 무역산업 정책 연계 - 외자유치 효율제고 - 해외진출 가속화

* 자료 : 19차 당대회 보고(시진핑, '17.10.18) ; 18차 당대회 보고(후진타오, ' 12.11.8)

2. 리더쉽 재편

□ 시진핑 중심의 안정적 권력구도 마련

- 시진핑 위상 강화된 가운데 정치적 도전 가능성 없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1인 지도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정치적 안정 기반 확보
 - 집단지도체제였던 시진핑 1기 때는 보시라이 등 정치적 도전자의 대두 가능성에 직면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성 노정
 - 새로 당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한 5인은 시진핑계(직계) 2명, 범시진핑파 1명*, 공청단파 1명, 상하이파 1명 등으로 구성돼 시진핑 리더쉽이 도전받을 가능성 거의 없어짐
- * 왕후닝 당 정책연구실 주임을 가리키며 20년 이상 최고지도자들(장쩌민, 후진타오)의 통치 이념을 작성한 이론가로서 파벌 성격이 없음
- 연령 구성으로도 신규 지도부 진입 5명 모두 60대로 차기 당 대회에서 퇴진해야 하므로 정치적 도전 가능성 적어짐

□ 경제라인 안정에 따른 정책 지속성 강화

- 실각설 속에서도 지위를 유지한 리커창 총리가 유임되어 위상 약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을 수행할 예정
- 시진핑 1기 리커창 총리를 도와 중국 경제정책을 주도해 온 인사들이 신임 지도부에 진입
 - 시진핑 1기 당 정치국위원이자 국무원 부총리로 경제 및 대외경제정책을 담당해 온 왕양(汪洋), 경제중심지 상하이에서 대외개방 선도 및 시범조치를 이끌어 온 한정(韓正) 상하이시 당서기가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

- 시진핑의 핵심 측근으로 시진핑 1기 공급측 개혁을 주도해 온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도 최고지도부(7인 정치국 상무위원)는 아니나 당 중앙정치국(25인)에 진입하여 공급측 개혁을 이끌게 되었음

□ 신지도부 구성상 통치이념 개발 및 강화, 적극적 대외정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

- 이번 당대회에서 장기 통치이념을 마련한데 이어 통치 및 대외 관계 전략을 주도해 온 왕후닝(王沪宁)이 지도부에 진입함으로써 중국형 정치이념과 대외전략 수립 작업이 더욱 적극 추진될 가능성
- 최고 지도부 진입의 필수 과정인 지방 근무 경력이 없는 이론 담당 학자 출신의 최고 지도부 진입은 처음임
- 왕후닝 신임 상무위원은 이번 당대회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물론 ‘중국의 꿈(中國夢)’ ‘신형대국관계’, ‘일대일로’ 등 기본 대외전략을 제시한 인물로 앞으로 이 분야 정책 계속 강조될 전망
- 이외에 정치국 상무위원은 아니나 양제츠(楊潔篪) 국무위원(외교담당)이 14년만에 당 정치국원(7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 25명으로 구성)에 발탁됨으로써 대외정책이 더욱 중시될 가능성이 커짐

<시진핑 2기 신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명단>

서 열	성 함	직책 (19차 당대회 개최일 기준)	연 령	구 분	배경 / 정책 분야 · 성향
1	시진핑	총서기·중앙군사위 주석·국가주석	64	유 임	○ 배경: 태자당 ○ 정책: 안정성장, 강력·포용적 중국
2	리커창	국무원 총리	62		○ 배경: 공청단, 경제학자 ○ 정책: 경제운용, 안정성장, 지한파
3	리잔수	당 중앙판공청 주임	67	신 임	○ 배경: 시진핑계, 서부인맥 ○ 정책: 정책 총괄, 조직(행정)
4	왕 양	국무원 부총리	62		○ 배경: 공청단 ○ 정책: 경제, 대외경제(통상)
5	왕후닝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67		○ 배경: 범시진핑계, 국제관계, 이론 ○ 정책: 사상·이론, 강력·포용적 중국
6	자오 러지	당 중앙조직부 부장	60		○ 배경: 시진핑계, 서부인맥 ○ 정책: 조직(인사), 반부패
7	한정	당 상하이시위 서기	63		○ 배경: 장쩌민계(상하이파), 온건 ○ 정책: 대외경제(개방)

자료원: KOTRA 작성

Ⅲ. 당대회 이후 경제정책 전망

1. 대내경제

□ (정책 영향) 당대회 특성상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주요 내용*
이므로 즉각적인 정책 조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적음

* 공산당집권체제의 특성상 공산당은 큰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정책은 정부를 통해 집행

○ 이번 당대회의 결정은 12월 개최될 중앙경제공작회의와 내년 3월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될 정부사업보고에 반영될 예정

□ (경제 동향) 최근 중국경제의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어
시급한 조치보다는 기존 정책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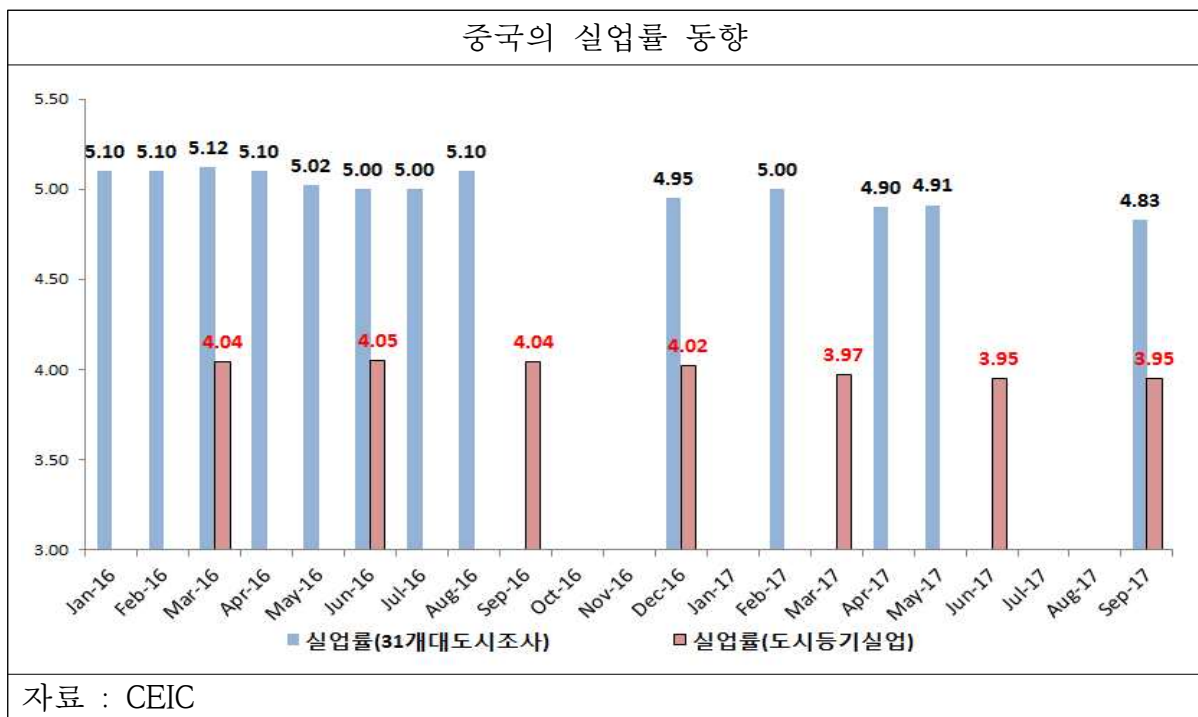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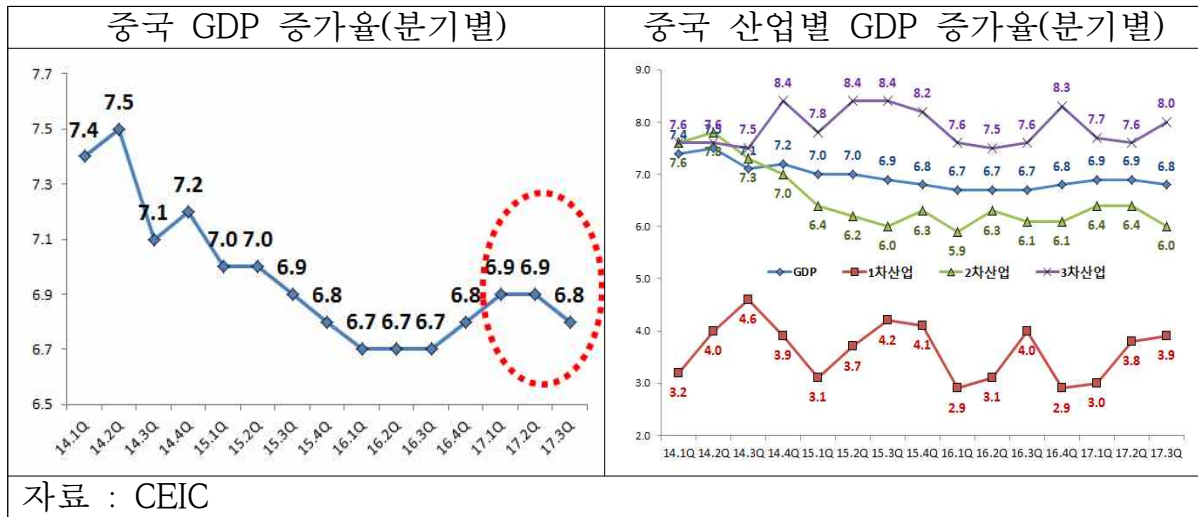
○ 17년 3개 분기 연속 당초 목표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기호조를 보이는 등 낙관적 분위기속에서 19차 당대회 개최

- 17년 3개 분기(1/3~1/3 분기) GDP증가율 6.9% 달성

- 특히 지도부에서 중점 목표로 관리하고 있는 실업율도 낮은 수준 유지하는 가운데 더욱 낮아지고 있음

* 31대 대도시 조사실업률 16년 말 4.95%에서 '17년 9월 4.83%으로 하락 ;
도시지역 등기실업률 같은 기간 4.02% → 3.95%로 하락

○ 양호한 경기 지표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기존 경기운용을 지속하는 가운데 구조조정과 신성장 동력 확보 노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큼



□ 실제 내용 역시 시진핑 1기때 수립, 실시되고 있는 13차 5개년 계획과 차이가 없음(상세 내용 2장 1절 참조)

- 이번에 제시된 6대 과제 즉 공급측 개혁, 혁신 강화, 농촌 진흥, 지역발전, 경제개혁, 대외개방 등은 모두 13차 5개년 계획에 반영, 추진되고 있는 정책임

- (공급측 개혁) 신기술 응용, 제조능력 제고, 인프라 확충, 국제 표준 적용 확대, 서비스업 확대와 구조조정 지속 전망
 - 후진타오시기(18차 당대회)에는 없었던 과제이며, 시진핑 1기의 정책을 바꾸기 보다는 1기 정책의 지속성 강화 맥락에서 추진될 전망
 - 따라서 시진핑 1기에 비해 구조조정 및 경제시스템 개혁이 더욱 강화될 건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
- (혁신 강화) 혁신 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능력 및 제도 개선
 - ‘자주적 혁신’을 강조한 18차 당대회에 비해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
 - 시진핑 1기에 수립, 추진중인 ‘중국제조 2025’, ‘13.5규획’ 등에 제시된 혁신정책 지속 추진 전망
- (농촌 진흥) 농촌 및 농업 안정과 현대화를 위한 조치 제시
 - 18차 당대회에 비해 목표가 구체화 되었으며, 농촌 및 농업의 장기적 발전과 안정성 유지가 강조될 전망
 - 따라서 대체로 농업 및 농촌에 지원 확대 등 단기적 정책 변화보다는 안정적 변화와 발전에 정책의 주안점이 두어질 가능성
- (지역균형)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겨냥한 지역발전 정책 방침 제시
 - 과거 18차 당대회에 비해 가장 많이 바뀐 분야중 하나로 일괄적 혹은 동시다발적 발전 보다는 특성화 발전을 더욱 강조하는 점이 특징
 - * 예) 서부대개발 자체 보다는 신구도 형성을 강조, 동북등 노공업기지의 경우에도 단순 진흥 보다는 진흥 개혁 심화를 강조, 중부굴기 자체 보다는 장점 발휘 강조 등
 - 이점에 비취 대부분 지역이 일대일로와 연계돼 있는 서부개발, 최근 공급측개혁(구조조정)의 여파로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동북3성 지역과 수도권(징진지) 개발의 핵심 프로

젝트인 숭안(雄安)신구가 향후 지역개발 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

- (경제개혁) 국유자산 관리, 혼합소유제, 경제운용 메커니즘 개선을 위한
경제개혁 방안 재확인
 - 이점에서 소유제 및 경제시스템의 근본적 개혁보다는 기능 보완 및
다양한 경제주체의 활력 증진(인위적 조정이 아닌)에 정책의 주안점이
두어질 가능성
- (대외개방 확대) 이 분야 역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로, 대외개
방 확대의 가속화 방침이 천명되고 있음
 - 일대일로 통한 협력 강화, 무역투자 자유화, 자유무역시험구 확대 및
자율권 확대 등 모든 분야에서 개방과 자유화 확대될 전망
- ※ 이상 내용으로 보아 시진핑 1기에 이미 작성, 실시되어 2020
년까지 추진 예정인 ‘13차 5개년 계획’ 이 수정되기 보다는
더욱 강력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

<13.5 기획 주요 내용>

분야	이슈	주요 정책
기본방향	기본방향	“4개 전면” *, 안정 성장(穩中救進), 개방 확대, 거시관리 강화 * 전면적 샤오강, 전면적 개혁 심화, 전면적 의법 통치, 전면적 당 지도
	거시정책	성장률 산업구조 고도화 - 중고속 성장(연간 6.5% 이상) - 전면 소강사회 (‘20년까지 GDP ’ 10년 대비 2배 성장) - 산업수준 제고, 소비기반 성장, 도시화 진전
	경제개혁	정부기능조정 국유기업개혁 - 기능 전환, 권한 조정, 효율 제고, 거시관리 강화 - 국유자산관리 개선
5개 정책분야	혁신(創新) 경제	발전동력육성 발전공간창출 혁신거점육성 신성장산업육성 - 혁신형 창업·대중창업·대중혁신(신수요, 공급원 발굴) - 권역별 경제중심지 육성, “인터넷+” 추진 -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실험실 추진 - “중국제조 2025” 추진
	균형성장	지역간 균형 도농간 협조 - 지역간 협조 강화 - 도농간 협조, 도농 일체화 추진
	생태발전	생태 보호 에너지 절감 -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 시스템 구축 - 에너지 절감 및 고효율 자원 이용 추진 - 관련 산업 육성
	대외경제	무역 개방 투자 개방 해외진출·협력 FTA - 무역, 투자 개방 확대 - ‘일대일로’ 통한 국제협력 -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 FTA 확대, 보완
	동반(共享) 경제	동반성장 지속성장 - 빈곤구제, 소득격차 감소, - 교육 제고, 취업·창업 지원, 사회보장 확대 - 위생, 인구(2자녀 정책)

자료원 : KOTRA, <중국 13차 5개년 기획(2016~20년) 주요 내용과 시사점>

2. 대외경제

□ (기본방향) 기존 정책 수정보다는 더 나아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주도 의지를 천명

- 시진핑 1기의 정책 성과(일대일로, 자유무역시범구, 개방 확대 등)에서 더 나아가 전면적인 개방형 신구도 형성을 통해 ‘인류문명공동체’ 구축의 지도국 역할을 담당 의지 공포
 - ‘인류문명공동체’ 제시는 중국이 글로벌 책임국가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것으로 과거 지역수준의 강대국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명
- 이번 당대회 이후 시진핑 1기의 대외경제정책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는 동시에 신규 개방 및 자유화 정책이 더해질 전망

□ (분야별 정책) 무역 확대, 투자 개방 및 쌍방향 투자 확대, 통상협력 및 이 모두를 아우르는 일대일로 전략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전망

- (일대일로) ‘5통’ *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일대일로 전략 더욱 적극 추진할 전망

* 정책 소통, 인프라 연계, 무역 연계, 자금 유통, 민심 상통

- (무역정책) 무역원활화, 서비스무역 촉진, 전자상거래 등 신무역 육성에 더욱 노력할 전망
 - 가공무역 우대 축소 등 가공무역정책 개혁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가치사슬의 중국 내륙 연장으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

〈일대일로 중점협력 분야〉

협력분야	내용
정책소통 (政策沟通)	○ 일대일로 건설의 보장수단 ○ 정부간 협력, 정책 공조, 실무협력 추진
인프라 연계 (设施联通)	○ 일대일로 건설의 우선분야 ○ 인프라건설 기획, 기술표준 시스템 연계, 인프라네트워크(도로, 철도, 항구, 에너지 등) 구축
무역상통 (贸易畅通)	○ 일대일로 건설의 중점내용 ○ 무역·투자 원활화 추진·장벽 해소, FTA네트워크 구축
자금융통 (资金融通)	○ 일대일로 건설의 지탱수단 ○ 역내 화폐·투융자·신용 시스템 안정, 화폐 교환·결산, 역내 채권시장 개방·발전 추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브릭스개발은행 추진 등
민심상통 (民心相通)	○ 일대일로 건설의 사회적 기반 ○ 문화·학술·인적(유학생, 여행)·체육·의료·취업 등 분야 교류 확대

* 자료 : 国家发展改革委·外交部·商务部,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2015年3月), 중국일대일로망 <http://www.yidaiyilu.gov.cn/yw/qwfb/604.htm>

○ (투자자유화) 그간 계속해 온 투자 개방 확대 및 원활화* 더욱 확대 전망

- *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투자자유화 도입,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확대 등
- 특히 이번 당대회에서 외장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 확대, 중국 내 등록기업에 대한 평등 대우를 강조

○ (자유무역시험구) 자유무역시험구의 대상지역 확대와 자주권 확대, 자유무역항 건설등이 추진될 예정

- 특히 대외무역항은 이번 당대회에서 처음 등장한 정책으로 대상과 내용이 관심 집중 예상

○ (대외투자(走出去))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을 겨냥*한 해외투자 확대 방침 천명

- * 글로벌 무역·투융자·생산·서비스네트워크 형성

Ⅳ. 시사점과 대응방안

1. 시사점

- (경제정책) 강력한 1인 지도체하의 정부주도 경제체제의 장기적 지속 방침은 중국경제의 지속발전 가능성과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전망
 - 시진핑 1인 지도체제와 중장기 국가발전 목표의 수립으로 정치적 안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높아졌음
 - 금융시스템 낙후성, 부채, 국유기업 개혁 미진 등이 불안정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그간의 대응 경험과 중고속 성장 지속가능성을 감안할때 앞으로도 근본적 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이번 대회에서 재확인된 신성장 동력 확충, 소비 수준 제고 및 서비스업 확대 의지로 보아 중국내 신산업 및 신시장 대두에 따른 시장진출 기회도 커질 전망
- 강력하되 포용적인 글로벌 강국을 겨냥한 대외경제 정책에 따라 대중 무역 및 중국내 비즈니스 여건 개선 가능성 확대
 - 일대일로 강화에 따라 중국내 관련지역 진출은 물론 일대일로 인프라 활용, 제3국 동반진출, 한중간 관련지역 개발 등 협력기회 확대
 - 무역제도 개선, 투자 자유화 및 쌍방향 투자 확대, 자유무역시협구 확대·개선 등도 중국 리스크 보다는 중국 진출 및 중국 활용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 전망

2. 대응방안

□ (기업) 일부 불안요인은 있으나 장기적 중국의 시장 확대 및 비즈니스 여건 개선이 예상되므로 중국 진출전략 재정비의 기회로 활용

- 인터넷 플러스(+) 등 신성장 산업, 스마트 제조 육성책에 따른 기계설비와 원부자재 수요, 환경 산업 확대 수요, 도시화 관련 수요 등 지속 확대 예상
- 사드 관련 보복 및 여건 불안정 가능성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므로 소비재, 식품 대중 수출 및 서비스 진출 전략 추진 검토
- 연말(12월 20일)이 되면 발효 4년차에 접어드는 한중 FTA의 활용 혜택도 커지게 되므로 한중 FTA 활용 확대에 노력
 - 특히 소비재 수출이 많은 중소기업의 한중 FTA 활용이 필요

□ (정부·지원기관)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및 포용적 글로벌 강국 전략을 감안한 활용 및 협력 전략 추진

- 이번에 발표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계획에 따른 시장 진출 기회 발굴, 홍보
- 한중 FTA 활용 확대 지원 및 이행 강화와 후속협상 추진
 - 한중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중소기업 대상 홍보와 지원 강화
 - 통관, 기술무역장벽(TBT), 위생검역(SPS) 등 각 분야 한중 FTA 이행 및 후속작업 강화

- 조만간 시작될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한 자유화 확대
- 한중 FTA 시범사업 추진 강화 및 협력 모델 발굴
- 중국의 핵심 대외경제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중간 협력 모색
 - 한중간 일대일로 협력 방안 발굴 및 추진
 - 자유무역시험구 연계 시범사업 모색

[첨부1] 당중앙 정치국 신임 상무위원(5명) 프로필

리잔수 (栗戰書)	서열 3위 전인대상무위원장	
	◆ 시진핑 집권1기 직책: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 학력 : 허베이 사범대 정치교육 학사→중국사회과학원 석사(연수)→하얼빈공대 MBA ◆ 주요경력 : - 2012~ :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 2010 ~ 12 : 구이저우성 근무 (최종 직책 : 구이정성 위원회 서기) - 2003 ~ 10 : 헤이룽장성 근무 (최종 직책 : 헤이룽장성 위원회 부서기) - 1998 ~ 03 : 산시성 근무 (최종 직책 : 산시성 위원회 부서기) - 1971 ~ 98 : 허베이성 근무 (최종 직책 : 허베이성 위원회 상무위원)	
1950년생 (한족) 출생지: 허베이	◆ 특이사항 (시자진, 개혁파, 서부인맥, 반부패 인사) - 개방, 개혁 성향으로 시진핑의 오른팔, 산시성(陝西, 시진핑 주식 부친 고향) 근무 - 시진핑 해외순방 고정 수행인사, '15.3월, '17.4월 두 차례 러시아 특사 방문 ◆ 한국 관계 - 시안시 하이테크산업유치 위해 서울 방문('03.4월) - 헤이룽장성 근무시 한국 정재계 인사 면담: 충북 대표단('06.9월), 정계요인대표단('09.10월) - 시진핑 주식 방한 수행('14.7월), 문재인-시진핑 한중정상회담 동행('17.7월)	

왕양 (汪洋)	서열 4위 전국정협 주석	
	◆ 시진핑 집권1기 직책: 국무원 부총리 ◆ 학력 : 중앙당교 학사→중국 과기대학 관리학 석사 ◆ 주요경력 : - 2013 ~ : 국무원 부총리, 중앙정치국 위원 - 2007 ~ 2013 : 중앙정치국 위원, 광둥성 위원회 서기('12.12월限) - 2005 ~ 2007 : 충칭시 위원회 서기, 중앙정치국 위원 - 2003 ~ 2005 : 국무원 부비서장 - 1999 ~ 2003 :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부주임 - 1984 ~ 1999 : 안후이성 근무(최종 직책 : 안후이성 위원회 부서기 및 부성장)	
1955년생 (한족) 출생지: 안후이	◆ 특이사항(후진타오 라인, 경제개혁파) - 가난한 노동자 출신으로 초고속 승진 신화를 이뤄낸 대표적 개혁가 - 낙후 산업 퇴출,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산업 적극 유치하는 '등롱환조(새장을 비워 새를 바꾸다)' 산업구조조정정책 제창 ◆ 한국 관계 - 외통부 초청으로 방한('09.11월):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포스코와 LGD LED 사장 면담 - 2015 중국 관광의 해 맞아 공식 방한('15.1월) - 주요 대기업 회장과 면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6.3월), 정몽구 현대차 회장('15.1월), LG 그룹 회장('15.1월)	

서열 5위 중앙서기처 서기

왕후닝 (王沪宁) 	◆ 시진핑 집권1기 직책: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일대일로’ 건설공작소조 부조장,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구성원 ◆ 학력 : 푸단대학 국제정치학 학사→석사 ◆ 주요경력: - 1995 ~ : 중앙정책연구실 근무 (최종 직책 :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 1977 ~ 1989 : 푸단대학 근무 (최종 직책 : 법학원 원장)
1950년생(한족) 출생지: 상하이	* 푸단대 근무기간 미·중 정치체제, 반부패 등 연구로 두각 나타내기 시작 ◆ 특이사항(상하이출신, 학자형 관료, 시자권, 최고지도자의 이론 책사) - 중국 정계 핵심 브레인, 시진핑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수석책사 - 시진핑이 제시한 ‘중국의 꿈’, ‘신형대국관계’ 모두 왕후닝의 작품 - 장쩌민(3개 대표론)·후진타오(과학발전론)·시진핑 사장 3대 최고지도자의 정치이론 수립에 기여 ◆ 한국 관계 - 최고지도자 한반도 방문 수행 , 장쩌민 북한 방문 수행(’01.9월), 후진타오 방한 청와대 정상회담 동행(’08.8월), 시진핑 주석 수행 방한(’14.7월), 문재인-시진핑 한중정상회담 동행(’17.7월)

서열 6위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자오러지 (赵乐际) 	◆ 시진핑 집권1기 직책: 중공중앙 조직부장 ◆ 학력 : 베이징대학 철학 학사 ◆ 주요경력 : - 2012 ~ : 중앙정치국 위원 및 중앙조직부 부장 - 2007 ~ 2012 : 산시성 근무 (최종 직책 : 산시성 위원회 서기) - 1974 ~ 2007 : 칭하이성 근무 (최종 직책 : 칭하이성 위원회 서기)
1957년생 (한족) 출생지: 산시(陝西)	◆ 특이사항(시자권, 서부인맥, 반부패 인사) - 산시성(陝西, 시진핑 주석 부친의 고향) 출신의 시진핑 심복 - 37세의 나이에 칭하이성 성장직 수행 ◆ 한국과의 관계 - 한국주시안총영사관 개관식 참석, 김하중 전 주중대사 면담(’07.9.) - 삼성 시안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 김중종 삼성전자 사장과 면담(’12.3.), 산시성-삼성전자 전략적 협력체결식에서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면담(’12.4.), 삼성 시안반도체 생산단지 건설 기공식 참석(’12.9.),

시열 7위 국무원 부총리

한정(韓正) 	◆ 시진핑 집권1기 직책: 상하이시 당서기 ◆ 학력 : 복단대 → 화동사대 정치교육학 연수 → 국제관계와 세계경제학 석사(연수) ◆ 주요경력 - 1975 ~ : 상하이시 근무 ◆ 특이사항 (장쩌민파, 온건개혁파) - '75년부터 금융 중심지인 상하이에서 근무한 경제 인사, '장쩌민파' - 상하이 경제구조전략 및 발전모델 개혁, 국제금융 허브 건설 등을 주도 - '06.9월 부패혐의로 축출된 천량위 상하이시 서기를 대신하여 당시 시장이었던 한정이 대리서기직에 위임, 직후 '07년 시진핑에 서기직을 양도하며 시장직에 복귀 ◆ 한국과의 관계 - 부산-상하이 우호협력 MOU 체결 주도('12.4월) - 대기업 총수와의 면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3.4월), 최태원 SK그룹 회장('12.7월) - 한국 정계인사들과 면담: 방중 국회대표단('14.10월, '15.11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16.2월) - 북한 최영임 총리와 면담('11.9월)
1954년생 (한족) 출생지: 저장	

[첨부2] 당중앙 정치국원 프로필(상무위원 7인 이외 18명)

	출생 년월	연령	당 가입	당력	원적	학력 (학사)	신임 여부	18대 현직	19대 직위 (예상)
당쉐샹 (丁薛祥)	1962.09	55	1984.10	33	장수 南通	푸단대학 행정관리 석사	신임	중앙판공청 부주임 총서기판공실 주임	중앙판공청 주임
왕첸 (王晨)	1950.12	67	1969.12	48	베이징	중국사회과학원 석사	신임	전국인대 부위원장	전국인대 부위원장
류허 (劉鶴)	1952.01	65	1976.12	41	허베이 昌黎	인민대 석사 하버드 MPA	신임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 주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당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쉬치량 (許其亮)	1950	67	1967	50	산둥 臨朐	공군 제5항공학교	연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앙군사위 부주석
순춘란 (孫春蘭)	1950	67	1973	44	허베이 饒陽	중앙당교 석사	연임	중앙통전부장	중앙통전부장
리시 (李希)	1956.10	61	1982.1	35	간쑤 兩當	서북사범학원	신임	랴오닝성 서기	?
리창 (李強)	1959.07	58	1983.4	34	저장 瑞安	중앙당교 석사	신임	장수성 서기	?
리홍중 (李鴻忠)	1956.08	61	1976.12	41	산둥 昌樂	길림대학 역사학과	신임	텐진시 서기	텐진시 서기
양제츠 (楊潔篪)	1950.05	67	1971.12	46	상하이	남경대학 역사학과	신임	국무위원	국무원부총리 (외교담당)
양샤오두 (楊曉渡)	1953.10	64	1973.9	44	상하이	중앙당교 석사	신임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 감찰부장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

(계속)

	출생 년월	연령	당 가입	당력	원적	학력 (학사)	신임 여부	18대 현직	19대 직위 (예상)
장여우샤 (張又俠)	1950.07	67	1969.5	48	산시 渭南	군사학원	신임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
천시 (陳希)	1953.09	64	1978.11	39	푸젠 莆田	청화대학	신임	중앙조직부 상무부부장	중앙 조직부장
천취안궈 (陳全國)	1955.11	62	1976.2	41	허난 平輿	우한 이공대학 관리학박사	신임	신장위구르자치구 서기	신장위구르 자치구 서기
천민얼 (陳敏爾)	1960.09	57	1982.9	35	저장 诸暨	중앙당교 법학석사	신임	충칭시 서기	충칭시 서기
후춘화 (胡春華)	1963	54	1983.4	34	후베이 五峰	북경대학 중문과	연임	광둥성 서기	광둥성 서기
귀성쿤 (郭声琨)	1954.10	63	1974.12	43	장시 兴国	북경과학 기술대학 관리학박사	신임	국무위원, 공안부장	중앙 정법위원회 서기
황쿤밍 (黃坤明)	1956.11	61	1976.9	41	푸젠 上杭	청화대학 공공 관리학원	신임	중앙선전부 상무부부장	중앙 선전부장
차이치 (蔡奇)	1955.12	62	1975.8	42	푸젠 尤溪	복건 사범대학 경제학박사	신임	베이징시 서기	베이징시 서기

* 자료 : 성균중국연구소 특별리포트,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종합분석>(2017. 10. 27)

작성자

◆ 동북아사업단 정환우 중국조사담당관

KOCHI자료 17-016

중국 19차 당대회 경제분야
결정내용과 시사점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7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동북아사업단
(02-3460-7412)

ISBN : 979-11-6097-488-1 (95320)

Copyright © 201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중국 19차 당대회 경제분야 결정내용과 시사점